

# 불타는 KIA 6월 타율 .341... “전설의 기록 세웠다”

24경기서 892타수 304안타...120경기 체제·월 20경기 이상 체제 1위  
팀 득점도 486득점 압도적 1위...팀 안타도 유일하게 800개(818개) 넘겨

KIA타이거즈의 불타는 방망이가 역대급 기록을 생산했다. KIA는 지난 1일 잠실 LG전에서 10-4로 승리를 거두고 5연승을 달렸다. 지난 6월 27일 광주 삼성전부터 5연속 두 자리 득점을 올렸다. 프로야구 역대 신기록이었다. 최근 뜨거운 KIA의 공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1위를 굳게 지켰다. KIA는 5연속 두 자리 득점과 함께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겼다. 바로 6월 월간 타율이 무려 3할4푼 1리를 기록한 것이다. 24경기에서 892타수 304안타를 터트려 기념비적인 기록을 만들어 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팀이 월간 10경기 이상을 치른 기준으로 삼는다면 역대 3위의 기록이다. 1위는 1988년 9월 전진 해태타이

거즈가 기록한 3할5푼9리였다. 2위는 삼성이 원년인 1982년 6월 기록한 3할4푼5리였다. 그 뒤를 이어 KIA가 당당히 3위에 랭크되었다. 삼성이 1987년 6월 기록한 3할4푼, 두산이 2014년 5월 기록한 3할3푼7리가 각각 뒤를 이으며 TOP5를 형성했다. 그러나 120경기 이상 체제와 월간 20경기 이상에서는 KIA가 당당히 1위이다. 1988년 해태는 108경기 체제였고 9월 10경기의 기록이다. 1982년 삼성은 80경기 체제였고 역시 6월 10경기 타율이다. 이에 반해 KIA는 6월에만 24경기를 치렀고 3할4푼1리의 고타율을 기록했다. 본격적으로 120경기 이상의 체제에 돌입한 90년 이후 월간 팀 타율 1위이다. KIA는 6월 3할4푼1리를 앞세워

전체 팀타율에서도 유일하게 3할 타율(.302)로 1위에 올라섰다. 팀 득점도 486득점으로 압도적인 1위이다. 팀 안타도 유일하게 800개(818개)를 넘기며 역시 1위를 달리고 있다. 팀 출루율(.373)도 1위를 달리는 등 홈런과 장타율을 제외하고는 공격지표에서 선두에 있다. 43번이나 두 자리 수 안타를 날리며 상대 마운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4번타자 최형우(.357)를 비롯해 공포의 타격 1위 김선빈(.382), 강한 5번 안치홍(.340) 1번타자 이병기(.341)와 3번타자 버나디나(.306)의 활약, 하위타선의 나지완(.308)까지 무려 6명이 규정타석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하고 있다. 타율 10월만에 4명이 포진하고 있다. 규정타석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서동욱



도 3할6리를 기록중이다. 불타는 방망이는 불펜진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1위를 지키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며 끊임없이 득점을 생산해 상대의 추격을 따돌린다. KIA는 본격적으로 뜨거운 선두 경쟁에 돌입한다. 전설의 기록을 세운 KIA 타

선의 활황세가 7월 잠미철에서도 뜨겁게 유지할 것인지 팬들의 눈길이 쫓리고 있다.

## ‘연봉 5억원’ 한선수, V-리그 3년 연속 연봉킹...김희진 연봉퀵

현대캐피탈 문성민 2위 · 한국전력 서재덕 3위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한선수와 IBK기업은행의 김희진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배구연맹이 6월 30일 2017~2018시즌 남녀부 선수등록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자부 대한항공 한선수가 3시즌 연속 연봉 킹을 차지했으며, 여자부는 현대건설 양효진이 5시즌 연속 연봉 퀵을 차지함과 더불어 IBK기업은행 김희진이 양효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롭게 연봉 퀵자리에 올랐다. 지난 시즌 연봉 킹이었던 한선수는 5억원에 계약을 체결해 3년 연속 최다 연봉을 받는다. 이어 연봉 2위를 차지한 현대캐피탈 문성민이 4억 5000만원을 그 뒤로 한국전력 서재덕이 4억3000만원, 현대캐피탈 신영석, 삼성화재 박상하가 4억2000만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역시 현대건설 양효진이 3억원에 계약하며 지난해 이어 5년 연속 연봉퀵을 차지했고, IBK기업은행 김희진이 3억원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어 IBK기업은행의 김수지가 2억7000만원으로 3위, 한

국도로공사 박정아가 2억5000만원으로 4위, 한국도로공사 배유나와 김해란이 2억원으로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17~2018시즌 남자부는 7개 구단 총 105명의 선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구단별로 현대캐피탈 17명, 대한항공 16명, 한국전력 13명, 삼성화재 14명, 우리카드 14명, KB손해보험 17명, OK저축은행 14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부 평균 등록인원은 15명이며, 평균 연봉은 1억4090만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2016~2017시즌 등록 평균 연봉(2016년 7월1일) 1억 2620만원보다 높은 수치다. 여자부는 6개구단 총 88명의 선수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구단별로 IBK기업은행 12명, 흥국생명 15명, KGC인삼공사 14명, 현대건설 13명, GS칼텍스 15명, 한국도로공사 14명으로 집계됐다. 여자부 평균 등록인원은 14명이며, 평균 연봉은 8170만원으로 기록됐다. 여자부 역시 지난 시즌(7440만원)보다 평균 연봉이 올랐다.



2017~2018시즌 셀러리캡은 남자부가 24억원으로 1억원 증액된 금액이고, 여자부는 13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선수정원은 14~18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자유신분선수 명단도 발표했다. 남자부 한정훈(현대캐피탈), 추도빈(대한항공), 라광균(석정형, 정주형, 정진영, 황원산(한국전력), 이창준, 임효상(삼성화재), 김병욱, 송지민(우리카드), 백민규(KB손해보험),

박기현(OK저축은행) 등 총 13명이 자유신분선수로 등록됐고, 여자부는 김재영, 김해선(흥국생명), 손아영(KGC인삼공사), 이에림(현대건설), 정지은, 최소연, 최유정(GS칼텍스), 이경민, 차소정(한국도로공사) 등 총 9명이 자유신분선수가 됐다. 자유신분선수는 공식일로부터 정규시즌 4라운드 시작 전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입단계약을 맺을 수 있다. 뉴스

## 황재균, 대타 나서 데뷔 첫 2루타 작렬

데뷔전 첫 안타 결승 솔로포 이어 장타력 과시

극적으로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룬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다시 한 번 장타 능력을 과시했다. 황재균은 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지난달 29일 바리그로 승격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황재균은 전날 피츠버그전에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날 3루를 리더 존슨에게 맡겼다. 벤치를 지키던 황재균은 1-1로 팽팽히 맞선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로 나섰다. 시속 99마일(약 159km)에 달하는 강속구를 커트하는 등 승부를 풀카운트까지 몰고 간 황재균은 시속 98마일짜리 직구를 노려쳤다. 좌측 외야 깊숙한 곳으로 날아간 타구는 2루타가 됐다. 황재균의 2루타로 리드를 가져올 찬스를 잡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후속타자 다나드 스펀이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나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데뷔전에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결승 솔로포로 장식한 황재균은 2루타로 데뷔 두 번째 안타를 신고 장타력을 과시했다. 이날 1타수 1안타를 기록한 황재균의 메이저리그 성적은 8타수 2안



타(타율 0.250) 2타점 1볼넷 1득점이 됐다. 투수 타순인 9번에 대타로 들어간 황재균은 8회말 수비 때 스티븐 오컬트와 교체해 이날 경기를 마쳤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 접전 끝에 피츠버그를 2-1로 꺾었다. 1-1로 맞선 연장 11회초 스펀과 조 패니의 안타, 패니의 도루로 2사 2, 3루의 찬스를 만든 샌프란시스코는 3루에 있던 스펀이 상대 구원 대니얼 허드슨의 폭투로 홈인, 2-1로 앞섰다. 샌프란시스코는 11회말 등판한 샘 다이슨이 1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그대로 이겼다. 5연승을 질주한 샌프란시스코는 32승(51패)를 올렸다. 뉴스

## 박병호 “마이너 생활 쉽지 않지만, 야구한다는 것에 감사”

“팬들에게 내가 가진 능력 보여주고 싶어”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리그 재입성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지역 언론 로체스터 디마크레트&크로니클은 1일(한국시간)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한국인 슬러거 박병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병호와의 긴 인터뷰를 전했다. 미네소타 산하 트리플A 팀인 로체스터에서 뛰고 있는 박병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재입성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인기를 묻는 말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매체는 “박병호는 KBO리그에서 통산 210개의 홈런을 친 선수다. 2014년과 2015년 두 시즌 연속 50개 이상의 홈런을 친 스타 선수”

라며 “이런 선수라면 스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박병호는 어떤 대답을 할지 잠시 생각한 후 씩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하지만, 생각하는 만큼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이 매체는 “물론 박병호가 겸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네소타가 박병호 영입에 쓴 돈은 총 2485만 달러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한 박병호에 1285만 달러를 적어낸 미네소타는 4년간 총액 1200만 달러에 박병호와 계약했다. 지난해 박병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이며 62

경기에서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타점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결국 7월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박병호는 8월에 손등 수술을 받아 일찌감치 시즌을 접었다. 겨우내 절치부심했지만, 박병호는 올해 2월 초 구단으로부터 방출 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치되는 이쁨을 겪었다. 박병호는 초청 선수 신분으로 참가한 시범경기에서 타율 0.333 6홈런 13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눈도장을 찍었지만, 바리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박병호를 두고 로체스터 디마크레트&크로니클은 “미네소타는 박병호에 돈을 쏟아부었다. 박병호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트리플A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잔여 연봉을 보장받지만, 박병호는 누구보다 성실하다. 마이크 웨이트 로체스터 감독은

박병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평소 훈련 태도라며 “어떤 시련에도 박병호의 훈련 태도와 노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병호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팬들의 비판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농담했지만, 이어 “나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팬들에게 내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이너리그 생활은 녹록치 않다. 하지만 박병호는 야구를 하는 것에 감사하며 도전을 이어간다. 웨이트 감독은 “박병호가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박병호도 “메이저리그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 생활이 쉽지 않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마이너리그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 ‘셋업맨 출격’ 오승환, 8회 등판 시즌 첫 홀드

최근 팀내 마무리로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셋업맨으로 출전해 시즌 첫 홀드를 따냈다. 오승환은 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8회초 마운드에 올라 %이닝 2할 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오승환은 6월 들어 2해 4세이브 평균자책점 5.73으로 부진했다. 마이크 매서리 감독은 오승환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날 팀의 마무리가 아닌 셋업맨으로 출격했다. 팀이 2-1로 승리하며 오승환은 1승 4패 16세이브를 유지한 가운데 첫 홀드와 함께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하게 됐다. 뉴스